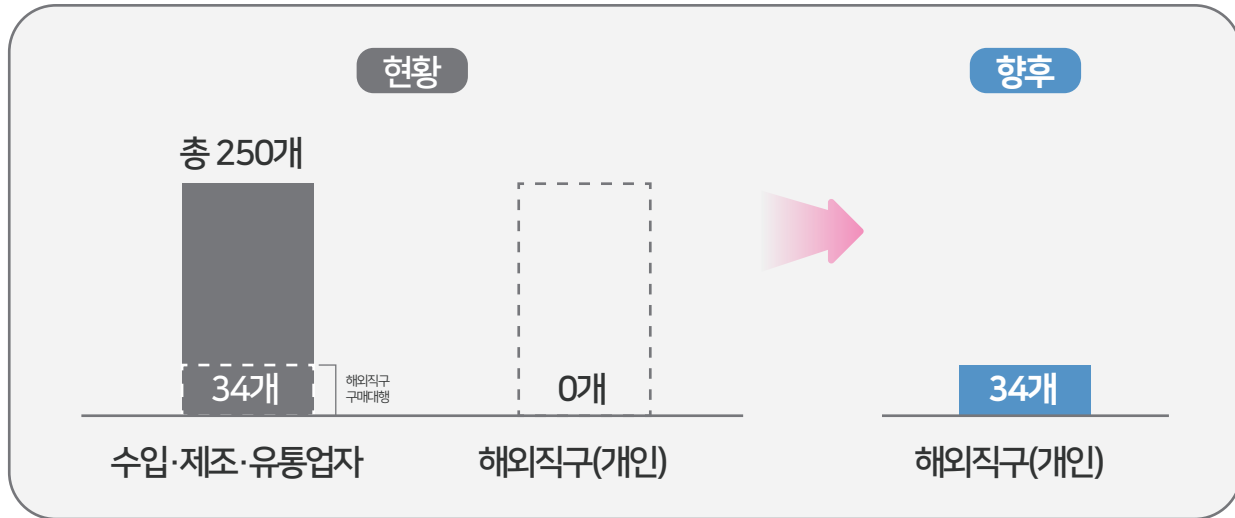


#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확보

- ☑ 국민 건강·안전에 직결된 품목은 사전 반입 차단
- ☑ 그 외 품목은 모니터링 후 위해성 확인 제품 차단

## 안전인증 필요

### 전기·생활용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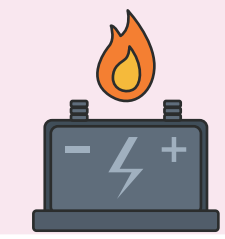


#### 대상품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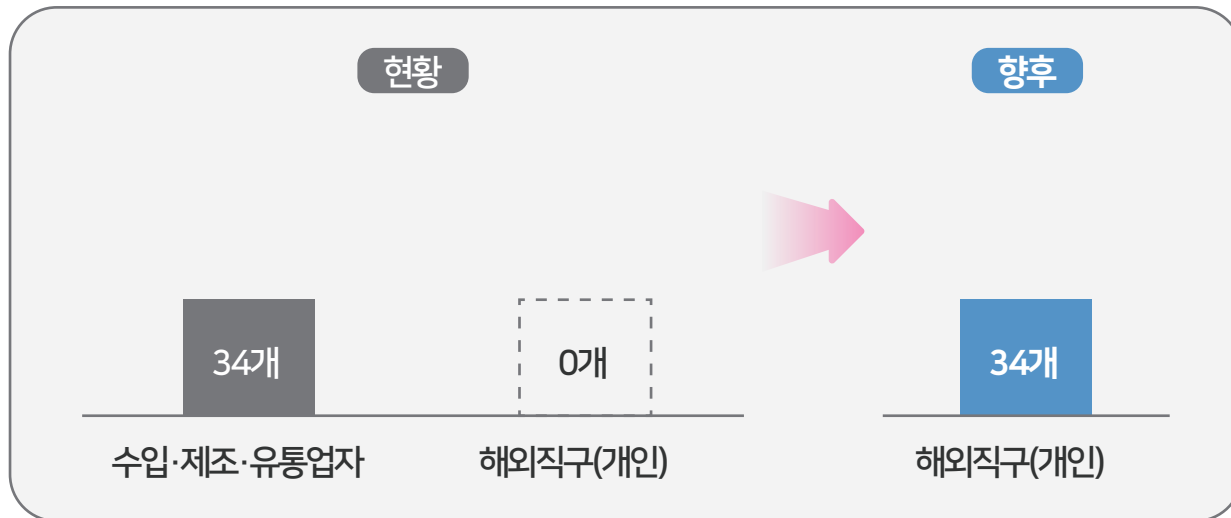
전기 온수매트, 전기욕조 등 34개 품목

#### 피해 및 위해성

- 캠핑용 배터리 화재 발생
- 전기매트, 전기찜질기 등 화상 및 화재 위험
- 건전지 카드뮴\* 함량 기준치 초과(11배)
- \*이타이타이병 유발, 중독 시 호흡계 등 질환 유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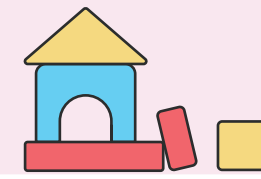


### 어린이 제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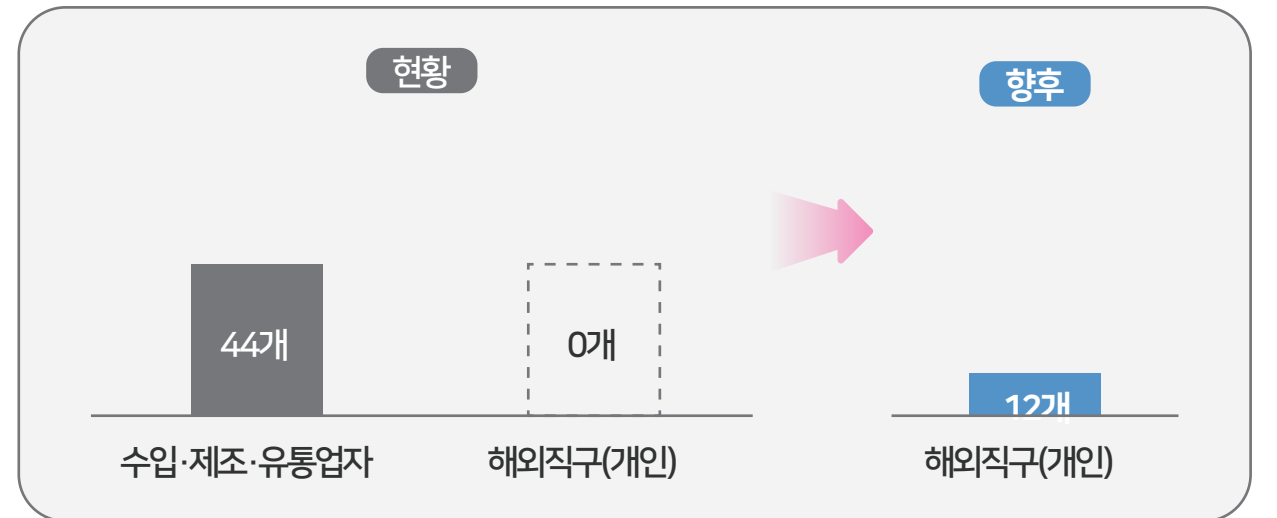


어린이용 유모차, 카시트 등 34개 품목

- 물놀이 튜브·장난감·연필 등 프탈레이트 가소제\* 기준치 초과
- \*여성 불임, 남성 호르몬 및 정자수 감소 유발, 발암물질
- 치발기는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고,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
- 카시트는 고정장치 불량(사고 위험) 발암물질 검출



### 생활화학 제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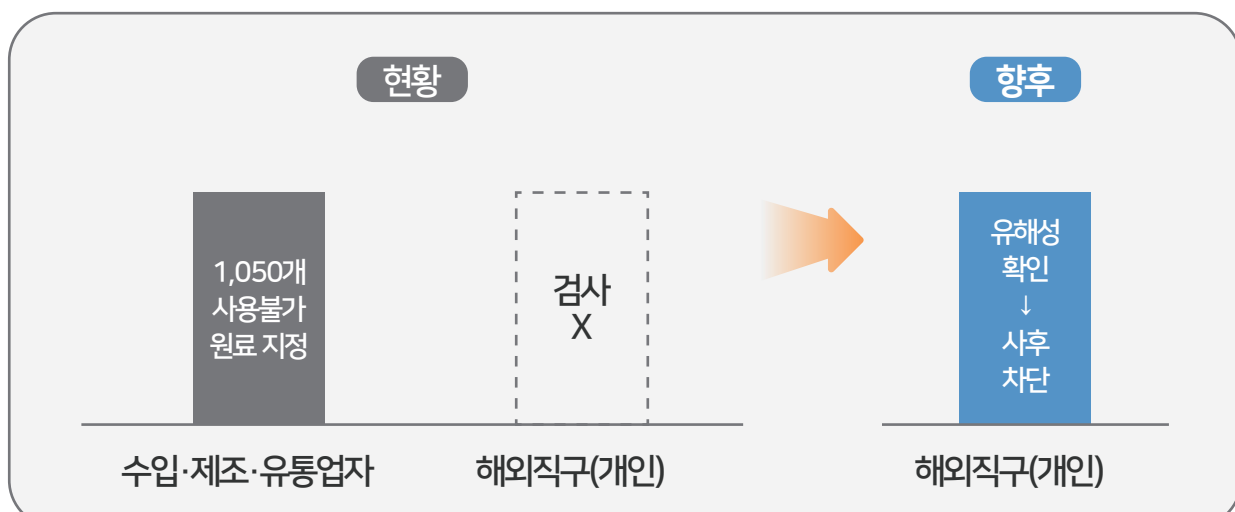
가습기용 소독·보존제, 살균제 등 12개 품목

- 살충제 등에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 검출
- 분사형 스프레이에 MIT, CMIT 등 금지 보존제\* 사용
- \*눈, 피부에 자극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



## 위해성 확인 제품 반입 차단

### 화장품



#### 대상품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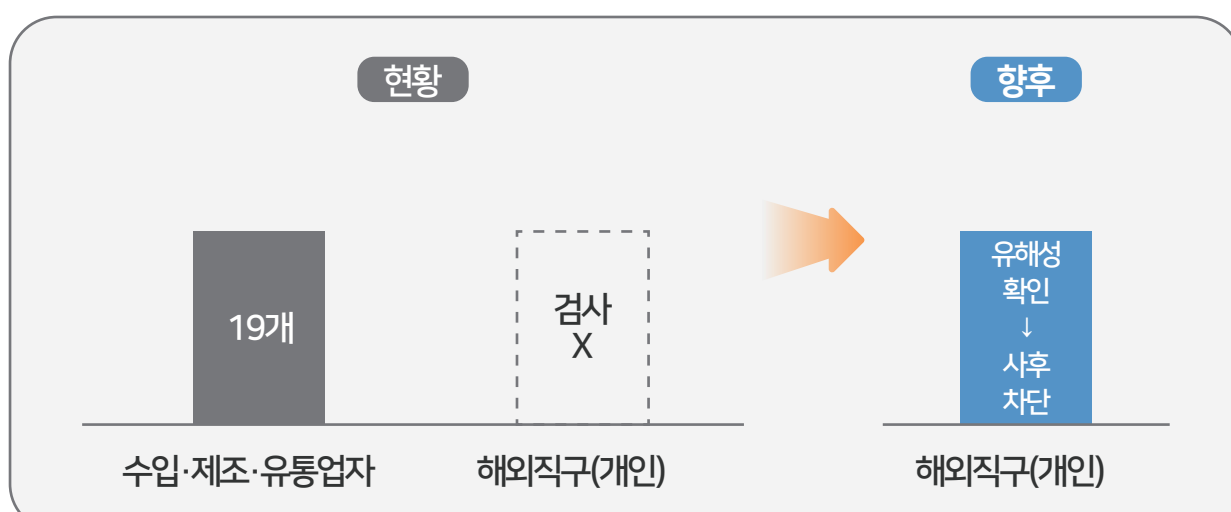
사용 불가 원료(1,050개) 포함 화장품

#### 피해 및 위해성

- 기초화장용 제품에 사용불가원료인 '스테로이드류', '아젤라산' 함유



### 위생용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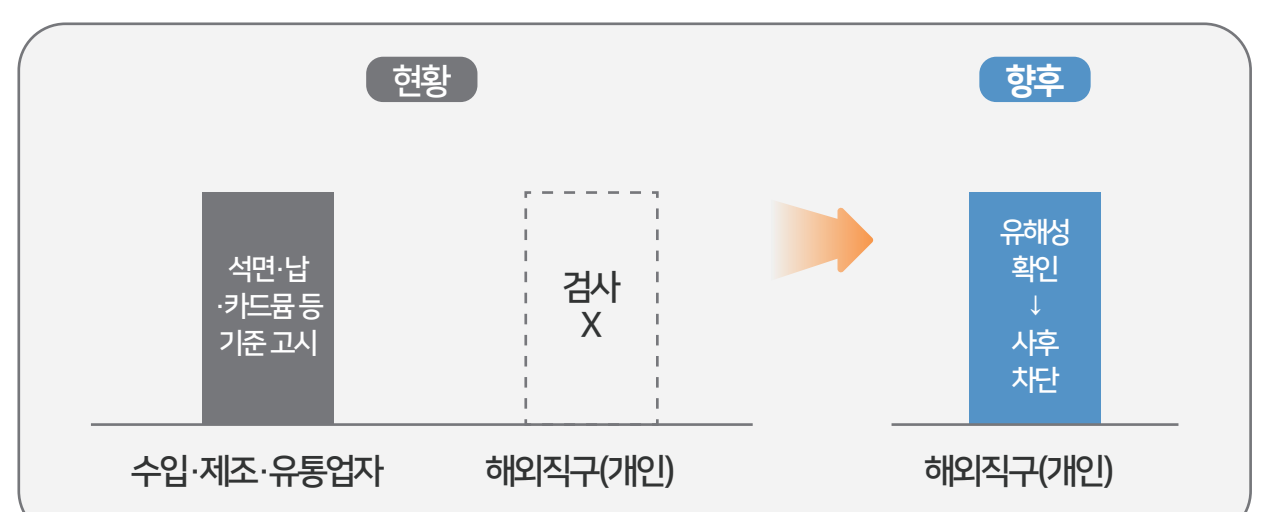


일회용 수저, 기저귀, 물수건 등

- 포름알데히드(발암물질) 등 안전기준 초과 우려



### 석면, 납, 카드뮴 등 함유 제품



석면(발암물질), 납·카드뮴(신경계·소화계 등 질환 유발) 등 기준치 초과 제품

-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 허용 기준(1%) 초과
- 납, 귀걸이·반지 등 카드뮴 기준치 초과(최대 700배)



## 기존 금지 품목 관리 강화

### 의약품·동물용의약품



### 의료기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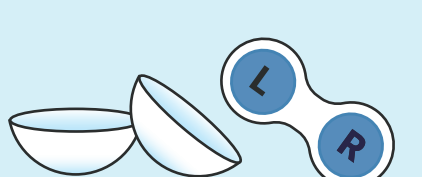


#### 현황

해외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, 일부 제품은 국내 반입되어 안전성 우려 및 현장의 혼선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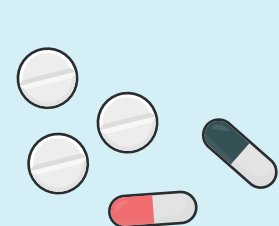


무허가 의료기기는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이 전면 금지되나, 전자혈압계, 보청기, 콘택트렌즈 등의 불법 직구 사례 증가



#### 대책

- 의약품 직구 금지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개정 추진('24)
- 법 개정 전까지는 우려가 큰 의약품 집중 차단
-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신중 구매 유도



- 사전 통관 협업 검사 강화 및 해외플랫폼 자율 차단 유도, 사후 적발을 위한 특별·기획점검 추진

